

조선대, 예비 예술인과 '아트콜라보'

미술대, 24일까지 지산학아트전 '인쇄의 거리'를 디지털 콘텐츠화 굿즈 제작·미디어 파사드 등 운영

조선대 미술대학이 오는 24일까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예비예술인과 함께하는 지산학 아트콜라보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학생들이 지역 주민과 협업하고 지자체-기업-학교가 연계한 아트콜라보 프로그램이다. 이는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CSU 도시캠퍼스' 사업과 연계돼 있다. 도시캠퍼스는 대학 캠퍼스를 도심으로 옮겨 민·관·학이 함께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지산학 아트콜라보전에서는 순수회화와 디지털 전공 학생들이 광주 동구 금동에 위치한 '인쇄의 거리' 이야기를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했다. 또한 아카이브를 통해 굿즈 제작, 미디어 파사드, 전시 쇼케이스 등을 운영해 다양한 시각예술을 선사한다.

조운성 조선대 미술대학장은 "이번 전시는 조선

대 도시캠퍼스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했다"며 "학생들에게 직접 현장 참여를 통한 도시 재생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연계를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비예술인으로서 회화, 디자인, 미디어 등 학과의 학생 20여 명이 함께 준비했으며 젊고 열정 가득한 학생들의 실험적인 예술작품들을 통해 다시금 활기 넘치는 거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인쇄거리가 위치한 서남동은 서석산(무등산) 아래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서석동과 광주읍성의 남문과 금계(광주천)에서 비롯된 남금동이 1998년 4월 통합되어 '서남동'으로 불린다. 서남동 일대 인쇄의 거리는 1940년대 옛 전남도청 주변으로 인쇄업체가 하나둘 터를 잡으며 시작됐다. 기획과 편집, 재판 업체, 인쇄소, 종이 판매상 등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인쇄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다. 한때는 광주전남 지역 인쇄산업의 중심지로 화려한 꽃을 피웠으나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주문 물량이 감소하고 원도심의 침체, 인쇄 기술의 발달, 전국적인 인쇄업체의 등장 등

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동구청은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주변(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음식-문화기획, 디자이너 사무 및 업무 교류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청년 디자이너와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 공유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위치는 광주 동구 금동 153번지 일원이며, 비테라 인 테라스 3층, 1,516.24㎡ 규모이다. 2025년부터 인쇄-음식-문화기획-디자이너 중심의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은 1인 창업자들의 기술·정보 교류 및 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북카페, 휴게시설, 미팅룸,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조선대는 미술대학생들의 창작, 교육, 전시, 연구, 개발,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위해 330㎡(100여평) 규모의 조선대 도시캠퍼스 '창작 스튜디오(가칭)'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산학 아트콜라보'라는 전시명과 같이 광주 동구청과 비테라 인 테라스(시티인벤더라 주식회사) 그리고 조선대가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몽골 예비유학생 대상 'AI·SW 로봇 코딩 캠프'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지난 17일 IT융합대학에서 CSU Winter School의 하나로 몽골 예비유학생 51명을 대상으로 'AI·SW 로봇 코딩 캠프'를 열었다. <조선대 제공>

광주대 일자리플러스센터-국제직업전문학교 업무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5일 국제직업전문학교(학교장 조승란)와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직업전문학교는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IT, 디자인 등 다방면의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직업전문학교의 직업훈련 전문성과 광주대학교의 진로·취업 지원 역량을 결합해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커리어 개발을 돕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신춘우(회계세무학과 교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국제직업전문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와 실질적인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9년 연속 '우수' 쾌거

호남·제주권 대학 중 유일

'취업에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으며 호남·제주권 대학 중 유일하게 9년 연속 최고 등급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에서 동신대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우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높이 평가받아 최고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3회 우수 평가 기관에 주어지는 사업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사업기간이 기존 2027년 2월에서 2028년 2월까지로 연장됐다.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안민주)는 지난 2016년부터 성과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왔으며, 호남·제주권 대학 중 유일하게 9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9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전국에서도 5개 대학에 불과하다.

동신대는 윈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와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체와 협업을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역산업 맞춤형 거점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자격증 과정, 일경험프로그램,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 청년들의 진로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동신대 안민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동신대학교가 취업에 강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우수한 결과를 받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동신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설계와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육청, 다문화학생 학업·생활 적응 돕는다

단어장·단계별 학습지 등 한국어 학습자료 8종 보급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다문화학생이 학업과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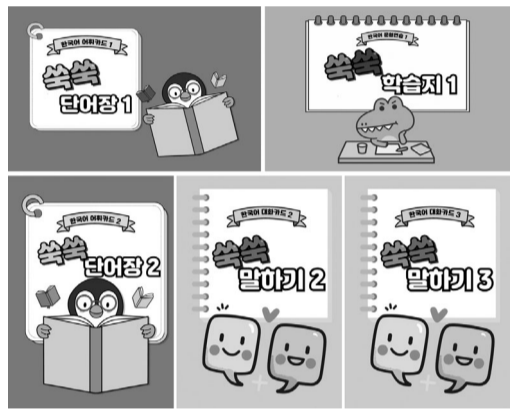
한국어 학습자료 개발은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와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다문화 학생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세계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어 학습자료는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단어장 5권과 단계별 학습지 3권 등 총 8종이다. <사진> 해당 자료는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 학교에 우선 보급하고,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학습자와 학습지원 대상 학생 등 현장 요구에 맞춰 제공한다.

또 '다모다' 수업 아카이브에 탑재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습자료가 학생들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학업과 생활에서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3월까지 광주형 한국어교육 앱도 개발해 5월 중순 일선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앱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애니메이션, 그림 등을 활용해 직관적인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AI 기술을 통해 다국어번역, 쓰기 및 말하기 학습, 필기 인식 기능 등을 지원하고, 교사 전용 기능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학습 격차를 줄이고,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계획



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한국어학습 교육자료 개발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국제 교류 활발...33개국으로 확대

전남교육청이 지난해 개최했던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이후 국제 교육교류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폐막 후 전 세계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전남 교육공동체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23년 대비 신규 업무 협력 체결이 8건에서 44건으로, 교류 국가 수도 20개국에서 33개국으로 늘어났다.

국제교류 운영도 143건에서 283건으로 증가했고, 일선 학교들도 온라인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방문·초청을 통한 국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활발히 추진했다.

또내 시·군 교육지원청들도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참여국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10여 개 나라와 추진 중인 지역특화 교류사업(학생 국제교류지원사업)들을 지역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기반 국제교류 활동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내 국제교육 교류 활성화는 미래교육박람회

개최와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시범교육청 운영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도 교육청은 분석했다.

도 교육청은 이들 사업을 올해도 지속해서 운영하고 국제 감각과 역량 함양을 통한 지역 특화·정주형 세계시민양성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만 전남도교육청 글로벌교육협력과장은 "기관별 국제교육 교류 확산이 전남 미래 인재 양성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전남 교육공동체가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